

진로 고민 상담소 : 미디어편

5월에도 어김없이 진로 고민 상담소가 문을 열었다. 이번에는 미디어 계열로 나아가고자 하는 학우에게 보탬이 되고자 한다. 졸업생 중 관련 종사자 수가 적어 정보를 얻기 어려운 만큼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 될 질문을 준비했다. 특히 이번 인터뷰 대상자는 모두 한국체대 졸업생이니 본인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함께 얻어가길 바란다.

송현일 수습기자 click21@naver.com



동행 학우 소감

학보사에서 현직 스포츠 캐스터로 활동하고 계신 선배님을 만나 뵈 좋은 기회를 주셔서 함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스포츠 캐스터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욱 매력적인 직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 뵈고 이야기를 들으니, 인터넷에서만 보는 피상적인 이야기 외에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꿈꾸는 저에게 정말 유익하고 동기부여가 많이 되었던 자리였습니다.



김소희
노인체육복지 22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 청소년지도학과 11학번 변효성입니다. 현재 SPOTV에서 캐스터로 활약하며 해외축구, 해외농구, 메이저리그 등 다양한 종목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Q. 스포츠 캐스터란 어떤 직업인가요?

A. 스포츠 캐스터와 해설 위원의 역할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축구 중계 시 “손흥민이 측면으로 넓게 벌려 서 있어서 상대 수비수들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있습니다.”라는 말처럼 경기 상황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부연 설명해 주는 것이 해설 위원의 역할입니다. 캐스터는 주로 “손흥민 공 잡았습니다. 직접 드리블 해서 올라갑니다. 옆에 있는 해리 케인에게 패스합니다.”라는 말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Q. 스포츠 캐스터는 채용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A. 보통 1차 카메라테스트 전형, 2차 실무 능력 테스트 전형, 3차 면접 전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류도 물론 제출하지만, 실질적으로 합격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죠. 오히려 특별한 스펙 없이도 실력만으로 합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익이나 자격증보다는 먼저 실질적인 실력을 쌓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Q. 스포츠 캐스터가 되기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학원에 다녀야 할까요?

A. 현실적으로 학원에 다니지 않고 혼자 준비해서 취업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원에 다니며 실력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캐스터는 ‘추천 제도’를 통해 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방송사에서 학원에 인재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의뢰받은 학

원 내에서 자체 오디션이나 강사의 추천을 통해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저 역시 추천 제도를 통해 첫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Q. SPOTV에 입사하기 전까지 아나운서 학원은 얼마나 다니셨나요?

A. 저 같은 경우 ‘봄온 아카데미’에서 아나운서 기초반 강좌를 수강했습니다. 주 2회 5개월 과정이었고, 비용은 37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해당 과정을 수료한 후, 스포츠 캐스터 강좌를 추가로 들었는데 이때는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첫 중계를 시작한 이후에도 ‘SPOTV 아카데미’와 ‘한국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강좌를 수강하며 꾸준히 채용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SPOTV 입사 전까지 총 3개의 학원에서 4개의 강좌를 수강한 셈입니다.

Q. SPOTV 캐스터가 되기까지의 취업 과정이 궁금합니다.

A. 첫 중계는 추천 제도를 통해 생각보다 일찍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한 스포츠 캐스터 강좌 수료 이후 강사님이 내셔널 K3, K4 축구 리그 중계 자리를 먼저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중계를 생각보다 일찍 경험했으나 이후의 길이 모두 평탄했던 건 아닙니다. 지금은 SPOTV에서 중계하고 있지만, 첫 중계 이후 안정된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약 70만가량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Q. 스포츠 캐스터의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아나운서 직업군 자체가 수입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포츠 캐스터는 그중에서도 수입이 적은 편입니다. 제 연봉에 대해 살짝 언급하자면 초봉 기준으로

모 공기업에 취직한 제 친구와 비슷한 정도였으나, 친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상 폭이 컸고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입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은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이 높지 않다는 것이 특별히 낮은 것은 아니니 즐길 준비가 돼 있다면 주저 말고 도전해 보세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하기에 현재 직업 만족도가 정말 높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중계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을까요?

A.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중계하는 것도 좋아해서 일 자체는 너무 즐겁습니다. 다만 해외 스포츠 경기는 보통 새벽 시간대에 있어서 삶의 패턴이 무너집니다. 새벽에 중계하고 쪽잠을 잔 후 아침에 다른 경기를 중계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가 주로 주말에 있어서 주말에 쉬기 어려워요. 정리하자면 삶의 패턴이 일반인과 다르고 불규칙하다는 점이 스포츠 캐스터의 단점입니다.

Q. 마지막으로 스포츠 캐스터를 준비하는 학우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대다수의 캐스터 지망생이 학원에 다니며 준비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실력 향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스스로 연습하는 시간을 갖는 게 더욱 중요하죠. 저 역시 실력의 기반을 대학교 3, 4학년 시절에 홀로 연습하며 쌓았습니다. 모든 스포츠 중계가 곧 검증된 답안지입니다. 캐스터가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해 가면서 더 좋은 소리를 내고자 연습해 보세요. 학원에 다닌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디 스스로 ‘검증된 답안지’와 가까워지려고 많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한국체육대학교 노인체육복지학과 17학번 이지영입니다. 현재 서울경제TV에서 방송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체육대학보 기자 출신인데, 학보사와 인터뷰이로서 만나게 돼 감회가 새롭습니다.

Q. 방송 기자란 어떤 직업인가요?

A. 기자란 누구보다 진실을 빠르게 파헤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직업입니다. 기자는 크게 신문 기자와 방송 기자로 나뉘는데, 방송 기자도 기사를 쓰긴 하지만 카메라 앞에 선다는 점이 신문 기자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Q. 방송 기자의 채용 과정이 궁금합니다.

A. 방송 기자는 일반적으로 1차 서류 전형, 2차 시사상식 & 논술 & 카메라테스트 전형, 3차 면접 전형으로 나뉩니다. 신문 기자와 달리 카메라테스트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채용 과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1차 서류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기자인 만큼 직접 쓴 자기소개서를 매우 꼼꼼하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토익은 800점 이상이면 괜찮다는 업계 내 이야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많을 텐데, 우선 시사상식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약술하라”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해당 키워드를 아는지 모르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논술 전형은 “본인이 현재 한국은행 총재라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같은 질문에 자기 생각을 넣어 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메라테스트의 경우, 방송 기자는 실제로 카메라 앞에서 말로써 보도하므로 이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3차 면접 전형은 기자

개인에 관한 질문이나 업무 역량에 관한 질문 등 다양한 질문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준비하고 솔직하게 답변한다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Q. 선배님의 구체적인 취업 노하우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A. 우선 자기소개서의 경우 형식적인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풍부한 삶의 경험이 내용에 잘 녹아들어야 합니다. 시사상식은 스테디 활동한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각자 가고 싶은 언론사를 정한 뒤 해당 언론사가 이슈에 대해 다룬 보도 내용을 요약해서 한 곳에 모읍니다. 이렇게 되면 요약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사상식이 갖춰질 뿐만 아니라, 각 언론사가 같은 이슈에 대해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올라오는 속보의 헤드라인만 보고도 그게 어떤 내용인지 말할 수 있도록 혼자 연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도 팁을 조금 드리자면, ‘기자답게’ 글을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불필요한 미사여구는 지양하고 최대한 간결하고 담백한 글을 지향하는 게 좋습니다.

Q. 방송 기자의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회사마다 차이가 나는 편이라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사람인’ 등 채용 커뮤니티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한 번 찾아보세요. 다만 방송 기자와 신문 기사를 포함한 모든 기자는 보통 정해진 월급 외 ‘취재비’를 추가로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월 50만 원의 취재비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비는 월급과 별개의 항목이고 세금도 떼지 않으므로 연봉 외 인센티브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학부생 때 했던 활동 중 기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느낀 활동이 있을까요?

A. 학보사, 네이버 스포츠 기자단, 그리고 KTV 국민기자단 등 기자와 관련된 교내 및 대외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기자로서 역량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방학 때마다 각 언론사에서 단기 대학생 인턴 기사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카페 ‘아랑’에 이러한 채용 관련 정보가 많으니 꼭 가입해서 찾아보세요.

Q. 상상했던 기자의 모습과 현재 본인의 모습에 차이가 있나요?

A. 제가 상상했던 기자는 사명감 넘치고 정의로운 모습이었는데, 저는 경제부 기자여서 그런 모습과는 살짝 거리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딱딱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상상한 기자의 모습은 사회부 기자와 더 가깝긴 하죠. 그래도 저는 제 일에 정말 만족합니다. 정말 즐겁고 보람찬 것 같아요.

Q.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루고 싶은 기자로서의 목표가 있을까요?

A. 최근에는 기자가 아나운서 대신 직접 앵커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현재는 경제부 기자지만 사회부나 경제부 등 모든 출입처를 경험한 후 풍부한 내공을 바탕으로 직접 뉴스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닌 사람들에게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기자이자 앵커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Q. 마지막으로 기자를 준비하는 학우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기자 관련 활동을 통해 기자로서의 역량을 쌓는 건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파



로 있습니다. 기자 활동 외에도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도록 노력해 보세요. 기자에게 경험은 그 자체로 무기입니다. 저는 학부생 시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바이애슬론 보조 심판, 100회 전국체전 탁구 종목 참가, 래프팅 가이드 등 다양한 활동을 했

습니다. 기자와 관련된 활동이 아님에도 면접관이 이러한 경험에 관심을 보였고, 제가 한국체대 출신인 점도 흥미롭게 여겼습니다. 기자 관련 활동도 당연히 좋지만, 여유가 된다면 꼭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길 추천합니다.

기자 생략

학보는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5월호의 진로 고민 상담소를 담당하게 돼 굉장히 뿌듯하다. 특히 기자 본인도 미디어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기에 더욱 뜻깊은 취재가 아니었다 싶다. 졸업한 선배들과 얘기하며 느낀 점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한국체대인만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 이 글을 보는 이도 그러한 에너지가 있다고 믿는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분명 꿈을 이룰 것이다. 학보사는 앞으로도 학우들의 진로 고민 해결을 위해 달릴 예정이다. 한국체대 재학생이라면 모두 환영이니 언제든지 진로 고민 상담소의 문을 열길 바란다.